

위해식품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

감사실

얼마전 모식품회사에서 생산년월일을 속이는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내용인즉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수거해다가 지하밀실에서 생산년월일을 화학약품으로 지우고 다시 찍는다는 것이다.

이를 그저 보아넘길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보도를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간장이다” “가짜고추장이다” 해서 사회적으로 떠들썩했던게 엇그제 같고, 뿐만아니라 콩나물에 농약, 커피에 담배가루, 땅콩과자에 벌레등, 식품으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것등 한두건이 아니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고의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체에 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설령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힌 식품일지라도 이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며 마땅히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획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특히 식품은 다른 제품과 달라서 그것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체내에 흡수되므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모든 식품의 법정유효기간은 각제품의 성격에 따라 엄격히 매겨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업자측이 이를 변

조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눈앞에 있는 자사측의 이익만을 위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양심마저 팽개쳐버리는 몰염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양대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모든 외국손님들에게 우리 사회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줘도 한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떳떳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부단히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이러한 파렴치한 작태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이러한 생산년월일이 변조된 식품을 외국손님들이 사먹고 인체에 탈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겠는가. 이는 '86, '88양대행사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하는 말만은 아니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에 있어서 먼저 안으로 정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치장을 하고 목청을 돋구어도 밖으로 깨끗하고 떳떳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에 관한 부조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을 생산하는 업주측에서 자각하여야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업자의 양심은 자기회사식품을 자기 가족들에게도 얼마든지 권장하고 먹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식품생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